

##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평가: (다)문화, 창의성 그리고 인성의 교육 측면에서\*

안성호  
(계명, 한양대학교)

**Ahn, Sung-Ho G.** 2012. **An evaluation of the 2009 Amendment of the School Curriculum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English education: Focused on its asp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reativity cultivation, and character-build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4, 747-775.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2009 Amendment of the School Curriculum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English education.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whether the general goal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stated in its general guidelines are faithfully reflected on the specific statements of the goals, achievement standards, and methods of instruction and evaluation for English education at the same levels. The degree of faithful linkage is evaluate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life skills and competencies of (i)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competency, (ii) creative thinking skills and (iii) social skills and ethical attitudes. To achieve this goal of study, the author has checked whether key words of these three skill areas are used in the seventeen sub-curricula for English subjects, and found out that except for advanced selective courses such life skills are emphasized explicitly only in stating the methods of instruction, but that they are generally stated in their statements of goals, achievement standards, and methods of evaluation only at best in an implicit way. This article interprets this as meaning that the 2009 Amendment generally leaves the most highly emphasized task of life skills education at the mercy of classroom teachers, and suggests that in a more efficient and coherent curriculum such life skills be specified as achievement standards and mandated to be evaluated as well.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1-330-B00159). 논지 발전 과정에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차윤경 교수를 비롯한 모든 SSK 연구팀원들께, 줄고를 꼼꼼히 읽어주신 현석분 박사께, 귀중한 논평을 제공하신 세 분의 <영어학> 논평자들께, 그리고 원고 정리를 도와 준 준 김은경 선생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Key Words:** life skills, character-building, creativity cultivation, curriculum evaluation, education goals, achievement standards, methods of instruction, and evaluation, English education

## 1. 교육과정의 평가

본 논의에서는 교육과정을 문서 속에 담긴 일련의 구체적인 교육 계획으로 보겠다(배호순, 2000, 106-7쪽; 배호순 외, 1997).<sup>1</sup> 논의의 대상이 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교육과학부(2011b)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목표, 그리고 각 학년군과 선택과목에서의 영어 교육 목표, 교육내용의 체계, 성취 기준, 그리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4]”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줄여서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라고 칭하겠다.

교육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논의는 다음 질문에서 출발한다.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이 얼마나 총론적 교육목표에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는가? 이 교육과정은 내용상 충분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어느 정도로 교육과정 요소들 간의 계열성이 확립되어 있는가? 즉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외적 적절성, 그리고 내적 체계성, 논리성, 일관성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Stake, 1981). 즉 총론교육목표와 영어과 교육 과정의 제 측면 (교육 목표, 내용 및 기준,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사이의 일치 정도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논리성 및 연계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Chen, 1990a, b).

좀 더 구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2009 수시개정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양으로 (다)문화적 이해, 창의성 계발과 인성교육의 측면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2011a,b),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이 그러한 (다)문화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교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과연 그것이 소기의 목적

<sup>1</sup>교육과정은 교육내용, 학습경험, 혹은 의도된 학습결과로 보기도 한다.

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진술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우선 제 2절에서는 기존의 영어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과 (영어)교과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 창의성, 인성 교육이 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논하거나 제시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 3절에서는 연구 방법을, 제 4절에서는 2009 영어교육과정의 (다)문화/창의성/인성 교육적 측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며, 그리고 제 5절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제언을 하며 남아 있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 2. 선행 연구

### 2.1. 영어-(다)문화 교육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하여 영어가 “세계어(global language)”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선행 연구자들을 인용하며(Graddol, 1997; Kachru, 1985; Jenkins, 2000; McKay, 2002; Smith, 1976),<sup>2</sup> 박약우(2004, 2005)는 영어교육의 목표도 (준)원어민((near)-native)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간문화적<sup>3</sup>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으로 수정되어야 함에 주목한다. 이는 ‘상이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박약우, 2004; 황적륜, 2000; Byram과 Fleming, 1998; Knoche, 2000; Risager, 2000). 그리고 이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영어에 대한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과 그들의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간문화적 화자(intercultural speaker)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를 협상해 나가며, 양 문화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설정하고, 그 차이를 중재하고 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이면에

<sup>2</sup>McKay는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세계어”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겠다.

<sup>3</sup>박약우는 interculturalism은 “간문화주의”로,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는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나, 본 논의에서는 “간문화(적)”으로 통일하겠다.

있는 공동적인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Byram과 Zarate, 1994).

이렇게 영어교육이 문화교육을 일부분으로 포괄하여야 한다면, 그 문화교육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고, 어떠한 문화를 가르쳐야 할까? Risager(1998)를 따라서, 박약우(2004)는 우리나라가 단일문화 사회임을 감안할 때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목표문화와 자기문화를 성찰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간문화적 접근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영어교육에서는 영미권 문화 뿐 아니라 자국 문화에 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아울러 다른 문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cKay, 2002).

김진석(2008, 2009)은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8)에서 영어가 국제어로 규정되어 있고, 박약우(2004, 200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다음과 같이 영어교육과정의 목표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 (1)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하고(초등),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한다”(중등).

“다른 나라”와 “다양한 문화”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문화를 영미권 문화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고, 우리 문화를 널리 소개할 수 있는 능력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고려가 교수/학습 방법과 소재에 대한 진술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 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성취기준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것이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올바르게 지적한다. 그리고 급격하게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박약우(2004, 2005)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교육은 다문화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의 진술에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총괄목표에 (2)를 첨가하고, 말하기 등과 관련하여 성취기준 (3) 등을 보강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 (2)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타 문화에 대한 균형적인 안목을 기른다.  
 (3) 다문화 관련 내용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말한다.

외국의 다양한 문화의 단순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른 입장을 용인하는 태도를 형성하고, 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취기준들이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는가, 언어 기능과 문화 내용 성취 기준을 이와 같이 통합하여 진술하여야 하는가의 중요한 문제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다양한 문화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그 결과 갖게 되는 다문화적 태도의 배양을 성취기준에 담을 것을 제안함으로써, 그가 지금까지 암묵적 교육과정에 맡겨졌던 문화교육적 측면을 공식 교육과정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매우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상이한 문화 요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성찰을 하게 하면 “저절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 다문화교육적 측면을 다시 암묵적 교육에 맡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한(2008)은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는 영어교육에서 문화 내용에 대한 정교한 지식체계의 형성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경험이나 그 치밀한 목표 달성도 기대하기 어려움을 통찰한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문화교육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문화교육과정을 확립할 것을 역설한다.

그는 삶의 총체로서의 “문화”를 (가) 물질문화, (나) 행동문화, (다) 정신문화로 대별하고(Bierstedt, 1957), 상호관련성이 있는 이 방대한 문화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정신문화 범주를 세계관, 자아관, 사회관계관으로 나누며 구체적인 정신문화 패턴 16개를 확립한다(Niesbett, 2003; Stewart & Bennett, 1991).<sup>4</sup> 그의 제안은, (가) 이

<sup>4</sup>예를 들어, 자아관과 관련된 문화 패턴은 다음을 포함한다: (a) Inanimism vs. Animism; (b) Objects vs. Relationships; (c) Abstraction vs.

문화패턴의 체계를 가르쳐야 할 항목으로 의사소통기능이나 문법형식처럼 교육과정에 목록으로 포함시키고, (나) 그와 관련된 물질문화와 행동문화의 항목을 소재에서 선택하여 학습한 후 이로부터 상위 정신문화 패턴을 발견/유추토록 지도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듯싶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제안들을 요약하면,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을 알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은데 외현적 문화의 차이를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신문화의 패턴을 알아가도록 귀납적으로 가르치면 좋겠으며, 이러한 문화교육이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2 영어-창의성 교육

우리나라는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창의성 교육을 지향해 왔고,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창의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1995년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신교육 체제의 수립을 위한 소위 “5/31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1997년부터 운영된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영어교육계에서도 창의성 교육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류위자(2003)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의적 사고가 유창성, 민감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연성 등의 특성을 지님에 착안하여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9)와 같은 방법으로 영어-창의성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4) 영어-창의성 교육 방법

- 가. 창의적 사고 기법들을 직접 교수하며 교과학습에 적용한다.
- 나. 수업과 평가의 내용과 활동에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게 한다.
- 다. 창의적 (협동)활동과 아이디어를 격려한다.

---

Sensation; (d) Analytic View vs. Holistic View; (e) Why vs. How; (f) Fact-Oriented vs. Emotion-Oriented; (g) Linear Progress vs. Cyclic Circulation.

그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소질상 이질적인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영어시간에 창의력 신장을 위한 여건을 여러 가지로 조성하고 단원마다 창의적 사고 특성 1가지 이상을 추가적인 학습 목표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학생들의 창의적 태도가 개선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신장되게 되었음을 보고한다. 이 연구는 창의성 신장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영어-창의성 통합 교육의 원형을 구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영철(2004)은 창의성 배양을 위한 초등과정에서의 주제중심 영어-과학 통합 수업안을 제시한다.

이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손중선과 김정삼(2007)은 언어 교과의 창의성 교육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고를 표현하고 화자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대상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가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습득하는”(312 쪽)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초등영어교육이 그 기초적인 영어능력의 확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손중선과 김정삼(2007)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노승빈(2007)은 류위자(2003)와 유영철(2004)과 같이 영어-창의성 통합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는 유창성(fluency), 유연성(flexibility), 정교성(elaboration), 그리고 독창성(originality)을 배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어활동들을 예를 들어 보이면서, 다음 (10)을 포함하는 창의성 교육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한다.

(5) 가. 영어수업이 창의성 교육 목표도 포함해야 한다.

나. 창의적 사고 계발을 위한 교수기법 및 학습활동을 사용한다:  
소집단 활동과 발산적 교수-학습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오류-수정을 최소화한다.

다. 언어 기량 뿐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해도 반드시 평가한다.

이 류위자-유영철-노승빈 제안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조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유영철이 제안하듯, 영어와 타 교과목을 내용적으로 통합하여 가르칠 때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므로 창의성-(교과/교과) 통합교육의

가능성이 많이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진수, 2012; 함승환 외, 2012).

### 2.3. 영어-인성 교육

창의성과 달리 인성의 교육은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 자신감 등) 정의적 태도를 제외하면 영어교육에서 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싶다. 김혜련(1999)은 “더불어 살기”를 추구하는 최현섭(1998)의 인성교육이 초등영어 수업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sup>5</sup> 왜냐하면, 영어가 협동학습이나 문학 등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12-13쪽)가 제시하는 존중성의 하위 덕목들은 겸손, 공감, 공정, 배려, 용기, 자기 통제, 조화, 책임, 협동, 자신감을 포함하는데, 그 전반적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6) 존중성: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통해 세계인으로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그는 이 존중성의 하위 덕목들에 대한 학습목표/성취기준을 제시하면서 문학, 협동 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명준 외 (2011)는 존중, 배려, 책임, 진실성, 정의/공정성, 시민성 등 6가지 내외를 인성교육의 주요 덕목으로 파악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협력적 학습 형태를 지향하고 인성교육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효과적인 영어-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어 기량뿐 아니라 인성 덕목의 배양을 목표/성취기준으로 포함하여야 하고, 그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가 필요하다.

<sup>5</sup>최현섭의 인성 개념이 지 (합리성), 정 (감수성), 의 (존중성)의 덕목을 포괄하기에, 김혜련은 합리성의 측면은 창의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라, 본 논의에서는 존중성을 중심으로 하여 “인성”을 사회적으로 이해하겠다.

<sup>6</sup>사실상 김혜련에게는 인성이 창의성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활동들이 창의성 계발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해야 공정할 것이다.



#### 2.4. 2009 개정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목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그 개정 방침의 첫 항목으로 제시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2쪽). 이는 이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에 잘 드러나 있다(같은 책, 1쪽).

##### (7) 추구하는 인간상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7나)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과 (7다)의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고 (7라)의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1995년에 설정하였다고 하는 “글로벌 창의인”(김승익 외, 2009, 18쪽)의 인간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하여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며,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체득하도록 교육함을 목표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3쪽).

그리고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강화하며 그를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중학교의 교육목표에서도 창의성과 다문화적 이해 그리고 인성이 함께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중학교 교육은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며, 사회생활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같은 책, 6쪽).

이 기조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히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추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같은 책, 9쪽)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창의성, (다)문화, 인성과 관련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겠다.

표 1 (다)문화, 창의성, 인성 목표

		(다)문화	창의성	인성
인간상		•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	• 새로운 발상, 도전	• 세계와의 소통 • 배려와 나눔의 정신
공통	초등	• 우리 문화의 이해	• 문제를 인식/해결하는 기초 능력; 이를 새롭게 경험하는 상상력	•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중등	• 다양한 문화와 가치의 이해	•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사고력	• 다양한 소통능력 •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선택	고등	• 다양한 문화와 가치의 수용	•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	•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는 각 영역에서 목표가 점진적으로 고도화된다는 것이다. 공통과정에서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정에서 그러한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을 수용하게 되도록 의도되어 있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관련하여서도 공통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의 기초 능력과 그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력을, 선택과정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까지를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 진술들은 (광의의) 창의성이 문제 인식 능력, 대안적 상상력,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과 (협의의) 창의적 사고력을 포함하는 특성임을 시사한다(문용린 외, 2010; 이광우 외, 2011).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성 개발이라고 주창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고등사고능력의 신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듯하다.

인성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교육에서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중학교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세계시민의 자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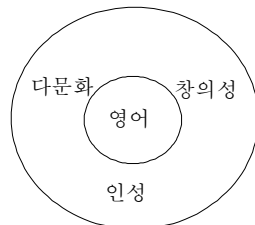
태도를 기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총론적 목표 요소가 각과 교육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2011a, 20쪽)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다문화 교육을 포함하는 소위 “범교과 학습주체”가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라고 권고한다. 즉 여러 교과에 걸쳐서 가르쳐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면에서 영어 교과가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임찬빈 외(2011)는 전제한다. 창의성, 인성 등 인지적/정의적 자질의 배양이 “모든 교과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추구되어야”(150쪽)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수업이 해당 내용의 습득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 신장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 절들에서 보았던 영어-다문화/창의성/인성 통합 교육 연구자들 뿐 아니라, 창의성 연구자들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김영채(1999, 387쪽)는 “사고의 수업을 내용 수업에 더 많이 통합시킬수록 학생들은 자기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더 많이 사고할 것이며, 또한 사고하는 기능과 전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내용 학습과 창의력 신장에서 소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침을 따라서 본고는 인지적/정의적 자질의 배양이 영어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정하겠다. 이 가정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편성은 일종의 통합교육과정인데, Fogarty(2009)는 교육과정 통합 모형 3인 “둥지 모형(Nested Model)”의 일종으로 제시한다. 교과 내용에 더하여 사회적 기량 (social skills), 사고 기량 등을 교육/수업 목표로 삼는 것이며 이를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시키면 다음과 같이 겹쳐진 동심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림 1 영어교육 목표



그러나 김진숙(2010), 김진숙 외(2010), 이경언 외(2010) 등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적 창의성 교육 목표가 교과 교육에 접목되어 있지 못하며, 또한 창의성 교육을 위한 방법과 평가가 교육 과정이나 실천에서 부재함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들은 2009 개정 총론이 완성된 후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을 명시할 당시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김진숙 외(2010)는 더구나 우리나라의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외국어 (영어)가 창의성 키워드 언급에서 가장 저조함을 지적한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국어 교과가 주로 기초 능력 함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이 총론적 교육 목표와 얼마나 적절하게 접목되어 진술되어 있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의성과 인성 등의 신장이 영어 교육에서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이는 당연히 그 교육 목표, 내용, 과정과 평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관계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영어교과를 통하여도 (다)문화 교육, 창의성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이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설정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방안임을 이해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총론적 교육목표가 영어교과의 교육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수준,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에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문제 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다)문화, 창의성, 인성의 교육 목표가 영어교과의 교육목표에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는가?  
 문제 2: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다)문화, 창의성, 인성의 교육 목표가 영어교과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적절하게 접목 되어 있는가?

문제 3: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다)문화, 창의성, 인성의 교육 목표가 영어교과의 교수/학습 방법에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는가?

문제 4: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다)문화, 창의성, 인성의 교육 목표가 영어교과의 평가방안에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공통 과정의 각 학년군과 선택 과정의 각 교과목 별로, 교육목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부분에 관련 키워드가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3.1. 대상 문헌,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처리**

본 연구의 대상 문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4]”(교육과학기술부, 2011b)이다.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규정한 이 문건은 465쪽에 달하는데, 이 문건에서 영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3개년에 이수할 수 있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다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군으로 나뉘고, 후자는 기본 과목 1개, 일반 과목 8개, 그리고 심화 과목 6개로 수준이 나뉘며 일반/심화 과목은 실용 영어와 영어의 두 과정으로 대별된다. 이 각각의 과정과 학년군 그리고 과목의 교육과정을 진술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2011b)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총론적 목표를 반복 진술한 후, 해당 학년군/과목의 영어과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의 측면을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영어교육과정 측면들이 (다)문화, 창의성, 인성의 3 영역에서 총론적 인간상 및 초/중등 교육 목표에서 추출한 다음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 총론교육목표와의 접목성 판단 준거

영역	키워드
(다)문화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 우리 문화, 다양한 문화와 가치
창의성	새로운 발상과 도전, 창의성, 문제 인식, 문제 해결(력), 상상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인성	세계와의 소통, 배려, 나눔, 타인과의 공감, 협동, 민주시민, 세계시민, 자기주도성

세계와의 소통 능력은 영어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 소통 능력과 유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의사소통 능력과 그 기초가 되는 사고 능력이나 자신감 등 정서적 태도 등은 창의성이나 인성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총론에 명시되지 않은 키워드는 단 하나가 첨가되었는데, “자기주도성”이다. 인성 키워드 중 민주성과 시민의 밑바탕이 되는 품성이므로 포함시켰다. 각 부분 별로 살펴보겠다.

첫째, 각 과목의 목표는 대체적으로 총괄목표(G)와 세부목표(S)로 나뉘어 진술되고 있다. 따라서 각 학년군과 과목의 양 목표의 진술에서 모두 표 2의 (다)문화/창의성/인성의 교육<sup>7</sup> 키워드가 사용된 경우에는 총론교육목표에 명시적 적절성을, 그 전자 (G)에만 사용된 경우는 암묵적 적절성을 지닌 것으로, 그리고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공통 영어과목에서 내용의 영역과 기준은 (가) 내용 체계, (나) 학년군 성취기준, (다)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으로 나뉘고, 선택 과정에서는 위 셋 중 “학년군 성취기준”이 없다. (가) 절은 다시 (가.1) 언어 기능, (가.2) 의사소통 활동, (가.3) 언어 재료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1)-(가.2) 절은 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하여, (가.3) 절에서는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 등을 규정한다. 따라서 (가.3) 절의 소재에 표 2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다)문화/창의성/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 절이 총론교육목표에 대한 암묵적 접목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절은 (나.1) 초등학교 3-4학년군, (나.2) 초등학교 5-6학년군, 그리고 (나.3) 중학교 1-3학년군으로 나뉘어 각 학년군의 전반적인 성취기준을 규정한다. 각 언어 기능의 세부적인 성취 기준은 (다) 절에 역시 각 학년군 그리고 과목 별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나)-(다) 절의 언어 기능별 성취 기준의 진술이 표 2의 키워드를 이

<sup>7</sup>목표문화의 교육이 꼭 다문화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타문화교육은 다문화교육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용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 문화/창의성/인성 교육의 성취기준이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으면 명시적 적절성을 지닌 것으로, 그러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소재를 사용하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암묵적 적절성을 지닌 것으로, 어느 것도 아닌 경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문화”, “창의성”, “인성”의 키워드 없이 그 관련/하위 개념을 나타내는 키워드만 있는 경우도 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영어의 듣기/읽기 성취기준에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맥락을 파악한다” 등이 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사회활동과 사회관계 유지 그리고 정보/내용의 공유 등과 필연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포괄하는 논리성, 느낌의 표현 능력 등은 또 창의성이나 인성과 관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각 영어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년군 별로 기술된 (가) 교수/학습 계획, (나) 교수/학습 방법, (다) 교수/학습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가) 절은 (가.1) 교수/학습 계획의 방향, (가.2) 교수/학습 계획의 단계, 그리고 (가.3) 교수/학습 계획상의 유의점을 기술하고 있다. (나) 절은 다시 (나.1) 교수/학습 방법 선정의 방향, (나.2) 교수/학습 방법, (나.3) 교수/학습 운영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 절은 (다.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방향, (다.2) 교수/학습 자료 활용 방법 및 활용상의 유의점으로 나뉜다. 따라서 (가)-(다) 절 별로, 표 2의 키워드가 사용되어서 교수/학습 방법이 기술되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교육 내용 및 기준에서와 같이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절의 성격 상 적절성을 명시적과 암묵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 모두 명시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대체적으로 역시 학년군 별로 (가) 평가 계획,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다) 평가 방법 (라) 평가의 활용, (마) 언어 기능별 평가, (바) 언어 기능 통합 평가 (‘기초 영어’ 평가의 중점)로 나뉘는데, (라)-(바) 절에는 표 2의 키워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가) 절은 다시 (가.1) 평가 계획의 방향, (가.2) 평가 계획의 방법, (가.3) 평가 계획상의 유의점으로 나뉘고, (나) 절은 (나.1) 평가 목표 수립과 내용 선정의 방향, (나.2) 평가 내용 선정상의 유의점으로 나뉘며, (다) 절은 (다.1) 평가 방법 선정의 방향, (다.2) 평가 절

차, (다.3) 평가 방법상의 유의점으로 나뉜다. 따라서 (가)-(다) 절 별로 표 2의 키워드가 (다)문화/창의성/인성을 평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명시적 접목성이 있는 것으로, 그러한 품성과 태도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였으면 암묵적 접목성을 지닌 것으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접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약하자면,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각 부분이 표 2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다)문화/창의성/인성의 교육을 명시적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술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총론교육목표에 대하여 명시적 접목성("0")을 지닌 것으로, 암묵적 교육과정으로만 진술되는데 사용되었다면 암묵적 접목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고, 그러한 키워드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면 접목성이 없는 것("X")으로 보았다.

#### 4. 결과 및 논의

본 절에서는 3절에 제시된 연구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11b)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내용 및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규정이 (다)문화, 창의성, 인성의 교육 측면에서 교육과정 총론에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 4.1. 영어교육 목표의 적절성

다음 표에 제시된 영어교과의 (다)문화, 창의성, 인성 관련 목표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표에서 "G"는 총론을, "S"는 세부 목표 진술을 나타낸다.

표 3 영어의 (다)문화, 창의성, 인성 관련 목표 진술

과정	학년군	과목	(다)문화		창의성		인성	
			G	S	G	S	G	S
공통	초등	영어	0	0	X	X	X	X
	중등	영어	0	0	X	X	X	X
선택	기본	기초영어	0	X	0	X	0	X
	일 실	실용영어1	0	0	0	X	0	X



과정	학년군	과목	(다)문화		창의성		인성		
			G	S	G	S	G	S	
	반	용 어	실용영어회화	X	0	X	X	X	X
			실용영어독해작문	X	0	X	X	X	X
			실용영어2	0	0	0	X	0	X
		영 어	영어 1	0	0	0	X	0	X
			영어회화	X	0	X	X	X	X
			영어 독해와 작문	X	0	X	X	X	X
	심 화	영어2	0	0	0	X	0	X	
		심화영어	0	0	0	0	0	X	
		심화영어회화1	0	0	0	0	0	0	
		심화영어회화2	0	0	0	0	0	0	
		심화영어 독해 I	0	0	0	0	0	0	
		심화영어 독해 II	0	0	0	0	0	0	
	심화영어작문	0	X	0	0	0	0		

주목할 만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과정의 영어교과가 총괄목표(G)나 세부목표(S)에서, (다)문화적 교육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둘째로, 창의성과 인성 관련 목표는 공통(초등/중학교) 과정과 선택(고등학교) 과정의 교과목 목표에 비대칭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즉 공통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과 인성 관련 목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직 선택 교과인 기초영어, 실용영어 1, 실용영어 2, 영어 1, 영어 2, 그리고 모든 심화영어과목의 목표 진술에서 창의성과 인성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셋째, 선택과정의 기본/일반과정 영어과목에서는 문제의 초인지/정의적 개념이 총괄목표에만 비대칭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초영어의 경우 총괄 목표의 진술에서만 위의 두 개념이 언급되고 세부목표의 진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총괄 목표의 진술에 창의성과 인성의 배양이 언급되는 경우는 “학생 중심의 활동, 협동 학습, 과업 해결을 통해”(교육과학기술부, 2011b, 129쪽) 등의 방법론이 언급되어 있다. 즉, 적절한 교수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는 창의성, 인성의 배양을 명시적인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적절한 교수방법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배양되도록 묵시적 교육 목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넷째, 모든 회화, 독해, 작문 과목에는 창의성/인성 관련 교육목표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오직 선택 심화 영어 과목에서만 창의성과 인성의 배양이 총괄 교육목표 뿐 아니라 명시적인 세부 교육 목표로도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심화영어의 총괄 목표에는 (13가)와 같이, 세부 목표에는 (8나,다)가 “라” 항과 “마” 항으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8)가. 창의성과 인성 계발에 도움이 되는 ...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과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

나. 각 **문화**의 차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다. 영어 학습을 통하여 **논리적, 탐구적, 창의적 사고능력**을 기른다.

(8나)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라 함은 다문화적 감수성, 민주시민의 역량, 인성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위의 첫째 양상과 관련하여, 영어과 교육목표의 진술은 (다)문화적 이해 및 수용과 관련된 총론적 교육목표에 매우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는 영어교육과정이 의사소통 역량 뿐 아니라 문화교육을 목표의 양 축으로 삼아 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둘째 양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목표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창의성 및 인성의 신장이 동 학년군들의 영어교육 목표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 시기에는 그러한 인지적/정의적 교육목표가 타 과목을 통하여서만 달성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손중선과 김정삼(2007, 312쪽)이 말하듯이 언어 교과목의 창의성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고를 표현하고 화자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대상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암묵적 가정 하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성 함양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가정을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또, 류위자(2003), 유영철(2004), 노승빈(2007), Fogarty(2009)의 등지모형(그림 2),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2011a), 임찬빈 외(2011) 등이 지적하듯이, 창의성이 영어와 함께 교육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바라고 한다면, 영어교육과정의 위 둘째 양상은 총론적 교육목표에 적절하게 접목되지 못한 측면이라 할 수 밖에 없겠다. 그리고 영어 의사소통의 기초 능력이 어느 정도 함양되어야 창의성 혹은 인성의 함양을 목표로 할 여유가 생기는 것일까? 이러한 비대칭성을 설명할 적절한 이론적 기반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셋째와 넷째 양상과 관련하여, 선택 일반 영어교육 과정에서는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이 총괄 목표에만 규정되어 있고 왜 세부 목표로는 진술되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회화, 독해, 작문 과목에서는 창의성 혹은 인성 신장이 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 이것도 둘째 양상에 대하여 지적한 이유 때문에 2009 개정 총론적 교육목표에 적절하게 접목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 창의성 및 인성의 배양이 중요한 소양이라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목표로 강조가 되고 그 성취 여부가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선택 일반 과정에서는 여전히 창의성/인성 교육을 일선 교사의 선택에, 암묵적 교육과정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창의성과 인성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량과 품성이라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과목의 모든 과정에서 세부 목표에 포함되어야 함이 옳다 하겠다. 심화 과목에서 (8나/다)처럼 진술되어 있듯이 말이다. 즉 과정별 인지적/정의적 교육 목표를 반영하는 다음 진술이 각 해당 과정의 모든 영어 과목의 세부 목표 진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9)a. 초등: 영어 학습을 통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과 상상력, 그리고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 b. 중등: 영어 학습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그리고 다양한 소통능력,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c. 고등: 영어 학습을 통하여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요약하면,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영어교육 과정이 2009 개정 총론적 교육 목표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으나, 창의성/인성 교육의 면에서는 비심화 선택교과에서는 암묵적으로만 적절하게, 오직 심화과목에서만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4.2. 내용의 영역과 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가) 내용 체계의 (가.1) 언어 기능과 (가.2) 의사소통 활동은 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가.3) 절의 소재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다루는데,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창의성,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 (10) (다)문화

- a.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 b.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 c.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 d.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11) 창의성

- a. 환경 문제, 자원과 [...]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 b.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 c.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

##### (12) 인성

- a.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 b.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민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이 소재들은 어느 영어교과에나 사용될 수 있는데, (다)문화, 창의(성), 그리고 인성과 밀접히 관련된 키워드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론 목표와 적절하게 접목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 학년군 성취기준 혹은 (다)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심화 과정을 제외하면 의사소통 기능의 학습을 기준으로 하여 진술되어 있다. “(다)문화”, “창의(성)”, 그리고 “인성”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표 2의 키워드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단지 세부목표에 창의성/인성 교육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심화 교과에

서만 과목에 따라 문화 키워드의 언급이 이루어졌고, 창의성과 관련된 키워드들, 즉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비판한다”, “논리에 맞게 기술한다” 등이 성취 기준 진술에 언급되어 있다. 인성과 관련하여서는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과목별 성취 기준

과정	학년군	과목	(다)문화			창의성			인성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공통	초등	영어	△	X	X	△	X	X	△	X	X	
	중등	영어	△	X	X	△	X	X	△	X	X	
선택 선택	기본	기초영어	△	X		△	X		△	X		
		일반	실용영어1	△	X		△	X		△	X	
			실용영어회화	△	X		△	X		△	X	
	실용영어독해작문		△	X		△	X		△	X		
	실용영어2		△	X		△	X		△	X		
	영어	영어 1	△	X		△	X		△	X		
		영어회화	△	X		△	X		△	X		
		영어 독해와 작문	△	X		△	X		△	X		
		영어2	△	X		△	X		△	X		
	심화	심화영어	△	X		△	0		△	X		
		심화영어회화1	△	0		△	X		△	X		
		심화영어회화2	△	0		△	X		△	X		
		심화영어 독해 I	△	X		△	0		△	X		
		심화영어 독해 II	△	0		△	0		△	X		
		심화영어작문	△	0		△	0		△	X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성과 관련된 언급은 성취 기준에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소재 규정은 (다)문화의 이해, 창의성 계발,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총론적 교육 목표에 적절하게 접목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성취 기준에서는 심화 과목에서를 제외하면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지 않고, 심화 과목의 성취기준들도 인성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창의성과 인성의 성취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영어의 성취 기준 진술이 총론적 교육목표에 별로 부합하지 않음도 사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의성과 인성의 성취기준이 진술될 수 있겠는

가? 창의성과 인성에 대한 성취기준을 독립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창의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13)과 같이 출발하여 좀 더 다듬고, 인성과 관련하여서는 김혜련(1999)이 제시한 교육목표 (6)의 세부 내용 (14)를 성취기준으로 다듬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겠다.

(13) 가. 창의성을 촉발하는 발문에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나. 창의적 사고를 초진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참신한 해결책을 구안한다.

(14) 가. 배려: 타인의 입장이 되어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줄 안다.

나. 조화: 학습 활동에서 구성원과 원만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다. 책임: 학습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주어진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

#### 4.3. 교수/학습 방법

각 영어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년군 별로 기술된 (가) 교수/학습 계획, (나) 교수/학습 방법, (다) 교수/학습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가) 절은 (가.1) 교수/학습 계획의 방향, 그리고 (가.3) 교수/학습 계획상의 유의점에서 모두 “창의성 계발 및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나) 절 “교수/학습 방법”은 (나.1) 교수/학습 방법 선정의 방향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의 이해하며, 창의적 활동을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나.3) 절에서 “협력 학습 태도 및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 유의하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면, 실용영어1은 교수방법 (나.1) 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나.2) 교수/학습 방법 절이 언어 기능 및 형식과 아울러 문화 내용의 교수 및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존중하는 태도”를 배양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 교육을 독립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성취기준이 언어 4기

능만을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과 내적 관련성은 약해 보인다.

(다) 절에서는 (다.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방향에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안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적인 양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과목별 교육 방법

과정	학년군	과목	(다)문화			창의성			인성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공통	초등	영어	X	0	X	0	0	X	0	0	0	
	중등	영어	X	0	X	0	0	X	0	0	0	
선택	일반	기본	기초영어		X	0	X	0	0	0	0	
		실용영어	실용영어1	X	0	X	0	0	0	0	0	0
			실용영어회화	X	0	X	0	0	0	0	0	0
			실용영어독해작문	X	0	X	0	0	0	0	0	0
			실용영어2	X	0	X	0	0	0	0	0	0
	영어	영어 1	X	0	X	0	0	0	0	0	0	
		영어회화	X	0	X	0	0	0	0	0	0	
		영어 독해와 작문	X	0	X	0	0	0	0	0	0	
		영어2	X	0	X	0	0	0	0	0	0	
		심화영어	X	0	X	0	0	0	0	0	0	
심화	심화영어회화1	X	0	X	0	0	0	0	0	0		
	심화영어회화2	X	0	X	0	0	0	0	0	0		
	심화영어 독해 I	X	0	X	0	0	0	0	0	0		
	심화영어 독해 II	X	0	X	0	0	0	0	0	0		
	심화영어작문	X	0	X	0	0	0	0	0	0		

이 분석에 근거하여, 영어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은 2009 개정 총론교육목표에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4.4. 영어 교육의 평가

평가는 선택 과목의 (가) 평가 계획의 (가.1) 평가 계획의 방향에서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구안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특이한 것은 공통과정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 평가 목표와 내용의 (나.2) 평가 목표 수립과 내용 선정의 방법에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라고, (나.3) 평가 목표 수립 및 내용 선정상의 유의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다) 평가 방법에서는 (다.3) 절에서 “언어 지식과 배경 지식, 의사소통 전략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라)-(바) 절에

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문화적 요소에 대하여는 명시적 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창의성/인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묵시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다)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 과목별 평가

과정	학년군	과목	(다)문화			창의성			인성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공통	초등	영어	X	X	X	X	X	X	X	△	X
	중등	영어	X	X	X	X	X	△	X	△	X
선택	기본	기초영어	X	0	X	△	X	△	△	△	X
		일반	실용영어1	X	0	X	△	X	△	△	△
	실용영어회화		X	0	X	△	X	△	△	△	X
	실용영어독해작문		X	0	X	△	X	△	△	△	X
	실용영어2		X	0	X	△	X	△	△	△	X
	영어	영어 1	X	0	X	△	X	△	△	△	X
		영어회화	X	0	X	△	X	△	△	△	X
		영어 독해와 작문	X	0	X	△	X	△	△	△	X
		영어2	X	0	X	△	X	△	△	△	X
	심화	심화영어	X	0	X	△	X	△	△	△	X
		심화영어회화1	X	0	X	△	X	△	△	△	X
		심화영어회화2	X	0	X	△	X	△	△	△	X
		심화영어 독해 I	X	0	X	△	X	△	△	△	X
		심화영어 독해 II	X	0	X	△	X	△	△	△	X
		심화영어작문	X	0	X	△	X	△	△	△	X

요약하면, 영어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문화 내용을 제외하면, 창의력 및 인성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복돋우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어 기 뿐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해도 반드시 평가한다는 노승빈 (2007)의 창의성교육 방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김진숙(2010), 김진숙 외(2010), 이경언 외(2010) 등이 지적하는 창의성 교육을 위한 방법이나 평가가 교육과정에 부재하다는 문제가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 개정 영어교육과정이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창의성 계발, 그리고 인성 함양의 측면에서 총론 교육목표에 어느 정도로 접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2011b)를 학년군과 과목 별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및 기준,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측면에서 “(다)문화”, “창의성”, 그리고 “인성”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공통 과정의 교과군들은 부적절하게, 선택 과정의 일반 과목들은 암묵적으로만 적절하게, 그리고 심화 과목들은 명시적으로 적절하게 총론적 교육목표에 접목되어 있다. 둘째, 교육 내용 및 기준에서는 모든 과정이 암묵적으로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다. 그러나 오직 심화 과목들만 문화와 창의성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다. 교수/학습 방법은 비교적 전 과정, 전 과목에서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문화 내용 요소를 제외하면 인지적/정의적 교육 목표들은 암묵적으로만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2009 총론 교육목표와 영어교육과정의 접목의 적절성

	교육목표			내용 및 기준			교수/학습방법			평가		
	공통	일반	심화	공통	일반	심화	공통	보통	심화	공통	일반	심화
(다)문화	0	0	0	Δ	Δ	0	0	0	0	X	Δ	Δ
창의성	X	Δ	0	Δ	Δ	0	0	0	0	Δ	Δ	Δ
인성	X	Δ	0	Δ	Δ	Δ	0	0	0	Δ	Δ	Δ

결론적으로, 2009 영어교육과정은 2007 과정보다 총론교육목표에 더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심화 과목들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적절하게 접목되어 있고, 교수/학습 방법의 면에서 그 접목 정도가 매우 높게 진술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화 과목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성취 기준과 평가의 면에서 그 접목 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하겠다. 김진숙 외(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기초 능력 신장을 주 목표로 하는 국내의 외국

어 교육 과정의 공통된 속성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교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교과에서도, 류위자(2003), 유영철(2004), 노승빈(2007), 김혜련(1999)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창의성/인성 교육적 목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량 및 품성의 성취 정도를 평가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과과정의 인지적/정의적 교육 목표가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성취 기준의 설정,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보급, 평가 기준 및 방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과목간의 통합/융복합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망한 대안이 될 듯싶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과제는 다문화적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교육과정에 편성해 넣을 것인가이다. 다양한 문화의 관례와 풍습이나 문화적 산물을 소개하여 그 다양성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가치의 다양성에 저절로 이르게 될 것인가? 김경한(2008)이 제안하는 것과 같은 문화패턴을 문화교육 내용 목록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그것이 (다)문화 교육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명시하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과학기술교육부. (2008). 외국어과 교육과정 (I).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별책 14].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 [별책 14].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한. 2008. 영어과 문화교육과정 확립 방안. 《영어교과교육》 7(2), 17-37.
- 김승익, 장인영, 민용성, 조난심, 백경선, 이승미, 민부자. 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 김영채. 1999.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성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김진석. 2008. 다문화를 고려한 영어과교육과정의 방향. 《언어》 33-4, 611-628.

- 김진석. 2009.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모색. 《영어교과교육》 8(1), 23-36.
- 김진수. 2012. 『STEAM 교육론』. 서울: 양서원.
- 김진숙. 2010. 왜 창의 인재인가 - 창의성 교육의 실효성 강화 방안. 2010년 제1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 김진숙, 이경언, 서민철, 박태준, 김승보. 2010. 창의성 교육 국제비교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 김혜련. 1999. 초등영어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 《초등영어교육》 5(2), 5-36.
- 노승빈. 2007. 창의성과 영어교육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사고개발》 3(2), 61-72.
- 류위자. 2003. 신나는 영어시간을 통한 창의성 함양 방안. 현장교육연구보고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co.kr>).
- 문용린, 최인수, 곽윤정, 이현주. 2010.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책연구 2009-019.
- 박약우. 2004.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과 지구어로서의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11(1), 45-66.
- 박약우. 2005. 지구어로서의 영어교육과 문화교육 방안. 《외국어교육》, 12(4), 375-400.
- 배호순. 2000. 『교육과정 평가 논리의 탐구: 학교교육과정 평가 방법론 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배호순, 윤병희, 김성운, 황규호, 백순근. 1997. 중/중/고등학교 교육과정평가 방안 및 도구 개발 연구. 학교교육과정평가연구회.
- 손중선, 김정삼. 2007. 창의성과 초등영어교육: 단기기억 메커니즘을 통한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 고찰. 《영어영문학연구》 33, 305-328.
- 유영철. 2004. 주제중심 영어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 방안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9(1), 121-144.
- 이광우, 조난심, 오은순, 권점례, 김현미, 지은림, 홍원표. 2011.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1-2.
- 이경언, 이광우, 김현미, 임선하. 2010.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3.
- 이명준, 진의남, 서민철, 이주연, 김병준, 박혜정. 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과정평가원.
- 임찬빈, 진경애, 장경숙, 이문복, 김미경, 이병천, 김성혜, 권오량, 김인석, 이현우, 오준일, 김영숙, 이성희, 이병민, 박한준, 한정희, 백인환. 2011.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현섭. 1998.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교과교육학연구》 2(1), 1-18.
- 함승환, 안성호, 주미경, 차윤경. 2012. 글로벌 수준의 융복합교육 개념화-- 현장 교사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분석. 21세기 국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교육 모델 포럼 자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SSK 프로젝트팀 심포지엄, 한양대학교.
- 황적륜. 2000. 현대 영어교육의 전망.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교육의 이해와 전망』, 3-17쪽.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Bierstedt, Robert. 1957. *The Social Order: An Introduction to Sociology*. New

- York: McGraw-Hill.
- Byram, M. and M. Fleming, eds: 1998.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Approaches through Drama and Ethn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ram, M. and G. Zarate, 1994. *Definitions, Objectives and Assessment of Socio-cultural Competence*. Strasbourg, France: Council of Europe.
- Chen, H. 1990a. *Theory-driven Evaluations*. Newbury Park, CA: Sage.
- Chen, H. 1990b. Issues in constructing program theory. In L. Bickman, ed. 1994. *Advances in Program Theory: New Directions for Program Evaluation*, 7-18. San Francisco: Jossey-Bass.
- Fogarty, Robin. 2009. *How to Integrate the Curricula*, 3rd ed. Thousand Oaks, CA: Corwin.
- Graddol, D. 1997. *The Future of English*. London: The British Council.
- Guilford, J. P. 1968. *Intelligence, Creativity,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San Diego: Robert R. Knapp.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chru, B.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R. Quirk & H. G.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Literatures*, 11-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oche, K. 2000. Intercultural competence. German Red Cross. Available at <http://www.uni-saarland.de/z-einr/efb/AHOI/Lims/Links/imprint.html>.
- McKay, Sandra L. 2002.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Rethinking Goals and Approaches*. Oxford: Oxford Press.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Free Press.
- Osborn, A. F. 1963. *Applied Imagination*. New York: Scriber's.
- Risager, K. 1998. Language teaching and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In M. Byram & M. Fleming, eds. 1998. *Language Learning in Intercultural Perspective: Approaches through Drama and Ethnography*, 242-25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sager, K. 2000. The teacher's intercultural competence. *Sprogforum* 18(6), 14-20.
- Smith, Larry E. 1976. English as an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RELC Journal* 7, 57-63.
- Stake, R. E. 1981. Persuasions, not model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3, 83-84.
- Steward, E. C. and Bennett, M. J. 1991. *American Cultural Pattern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Intercultural Press.
- Thurston, B. J. and Runco, M. A. 1999. Flexibility. In Pritzker, S. R. & M. A. Runco, eds. 1999. *Encyclopedia of Creativity*, vol. 2, 729-73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Torrance, E. Paul. 1962. *Guiding Creative Tal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Urban, K. K. 1997. Modeling creativity: the convergence of divergence or the art of balancing. In J. Chan, , R. Li, & J. Spinks, eds. 1997. *Maximizing Potential: Lengthening and Strengthening our Stride*, 39-50. Hong Kong: Social Sciences Research Centre, The University of Hong Kong.

안성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133-791  
전화: 02)2220-1145  
E-mail: shahn@hanyang.ac.kr

논문접수: 2012.10.26  
논문수정: 2012.11.30  
게재결정: 2012.12.13